

'복지가 답'... 희망복지 박람회 열린다

8일부터 이틀간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공연·체험부스·골든벨 등 행사 풍성

올해 9회를 맞이하는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가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펼쳐지는 희망복지 박람회는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민관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뿐 아니라 박람회 슬로건과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등 시작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기획했으며 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족 뮤지컬인 '짜장 경찰'을 공연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에서 총 5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밖에도 복지골든벨, 런닝맨미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 전시관, 읍면동 주민센터 발표대회, 통기타 경연대회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7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다양한 복지제도·서비스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찬 부스 운영 및 문화행사로 시민이 '복지가 답이다'를 체험하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군산 복지에 기여하는 박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가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전년도 박람회 장면

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기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관내 25개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군산시, 농정분야 발전 청신호

시장·기관·단체 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상호협력 증진·소통 약속

문동신 군산시장은 관내 25개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장 및 관내 농협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농업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농업관련 기관간 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농정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정 발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 지역농업 발전의 중심적 역할

을 하는 농업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산 농업을 살리는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6차산업 등 다양한 소득 창출로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군산시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주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산=장현기자



소병홍 의장 유재구 의원

지방의정봉사상에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 전북의정봉사상에 보건복지위 유재구 의원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7 지방의정봉사상을, 익산시의회 보건의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이 전북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전북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일 전북시군구의회연합회 대회의장에서 소병홍 의장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뤘다. 시민은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익산시의회 보건의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이 전북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전북의정봉사상을 받아 경점사를 맞았다. /익산=장영원 기자

국제 어린이마라톤 1900명 운집

군산시, 참가비 전액 라오스 지역 영유아 살리기 기부

예상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을 돕기 위한 '2017 국제 어린이마라톤대회'가 지난 2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군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달리는 것만으로 전세계 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1,900여명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약 4km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달리며 기부를 위한 의미 있는 팍방을 즐겼다.

마라톤 코스인 은파호수공원 수변로는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서 참가자들은 순위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달리면서 1km마다 설치된 말라리아 존, 식수 존, 저체온증 존, 영양 존을 체험하며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질병, 식량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범근기자

또한 마라톤 완주자들에게는 기념메달 및 간식, 기념품 등을 주었으며, 도착 지점인 제1주차장 주변에서는 ▲어린이장난감 나눔부스 ▲'질병을 물리쳐요!' ▲'영양분을 되찾아요!' ▲'종이로 전하는 마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1인당 1만원)는 라오스, 우간다 지역 영유아 살리기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대회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핵심 비전과 부합하고 전국 시단위로는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군산시 실무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일 군산고용지침회의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대상자 신청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법적 제도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홍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이 연계된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외되고 방치되는 어려운 시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당부했으며, "앞으로 군산시 복지사각지대가 제로화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군산=장현기자

익산, 여권창구 연장 운영 월요일 야간·토요창구 등 시민 편의 도모 '큰 호응'

익산시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월요일 야간 및 토요여권 창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요일 야간 및 토요여권 창구는 여권 발급 신청 시 평일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에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직장

인, 학생 및 시급을 요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여권창구 처리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966건으로 지난해 연간건수인 873건 보다 증가했으며, 토요 여권창구 처리 건수는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3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는 늘어나는 여권 수요에 따라 평일 근무 시간 외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여권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